

# 현대차, '14억 인구' 국민차 공략... 현지 맞춤 '3륜 전기차' 개발

TVS 모터 컴퍼니와 공동개발협약 인도 맞춤형 마이크로모빌리티 확대 가격·지속가능성·안전성 확보 목표 인도 부품 생태계 강화·고용창출 기여

현대자동차가 14억 인구 대국 인도의 '국민차' 3륜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인도 3륜차 시장이 전동화 바람을 타고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선 만큼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있다.

현대차는 20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바랏 만다팜 컨벤션 센터에서 현지 3륜차 제조사 TVS 모터 컴퍼니와 '3륜 전기차(E3W)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인도 시장 맞춤형 마이크로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이다.

이번 협력은 2018년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시작된 논의를 기반으로 약 8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



현대차 경영전략담당 고종선 전무(왼쪽), TVS 전략 담당 샤르드 모한 미쉬라 사장이 3륜전기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현대자동차

게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 회장은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새로운 모빌리티 개발 검토를 지시하며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현대차는 이후 현지 특화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에 나섰다. 특히 2024년 인도법

인 상장(IPO) 당시 현지를 방문한 정 회장은 모디 총리와 다시 만찬자리에서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신규 모빌리티의 디자인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견고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사는 인도 도로 환경과 도시 인프라에 최적화된 3륜 전기차를 공동 개발할

다. 목표는 가격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이다.

현대차는 차량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주도하고, TVS는 생산·판매·애프터 서비스를 맡는다. 주요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생산해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인도 부품 생태계 강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될 E3W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함께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해 현지 고객 경험을 강화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앞서 '바랏 모빌리티 글로벌 엑스포 2025'에서 관련 콘셉트를 공개한 바 있다.

고종선 현대차 전무는 "인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VS 측도 "양사의 기술과 시장 이해를 결합해 인도 맞춤형 3륜 EV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향후 시험 주행과 인증 절차를 거쳐 인도에 우선 출시한 뒤, 다른 3륜차 시장으로 확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 3륜차 시장은 전동화로 전환하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MARC에 따르면 인도 3륜차 시장은 연간 약 70만~80만대 규모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74만1000대가 판매, 4억 1029만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7.87% 성장해 2034년에는 8억 313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2년전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과 함께 안정적인 구조를 만든 만큼 인도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며 "이번에 현지 업체와 협력에 나서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중국 이상으로 성장할 정도로 규모가 큰 중요한 시장이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K-파운더스 네트워크' 첫 거점 세워... 국내 中企 글로벌 무대로

중기부, 인도 중기부와 中企 분야 협력 IIT와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 논의 중진공, MIDC와 투자촉진·산업협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현지 수출·진출을 위해 다양한 협력 모색에 나섰다.

인도 중소기업부와 손잡고 양국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한다.

인도 현지 한인 창업가 중심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를 발족하고, 인도 최고 엘리트 양성 대학인 인도 공과대학(IIT)과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중진공은 마하리슈트라 산업개발공사(MID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확대에 나선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중기부와 중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교환식'에서 (왼쪽부터)최일수 창업진흥원 본부장, 상기타 굽타 NASSCOM 부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바르샤 타쿠르 구게 MIDC 공동 CEO, 박장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가 중소기업 분야 혁신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 운영에 대

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튿날에는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

식'을 가졌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창업가들이 세계 어디서든 든든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와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 역량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며

대한민국 '모두의 창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창업 생태계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또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캠퍼스를 방문해 총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술 창업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런 가운데 중진공은 전날 MIDC와 '투자 촉진 및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하리슈트라주는 인도의 최대 산업·제조 중심지 중 한 곳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자촉진 및 행정지원 ▲인력양성·교육 ▲미래 신기술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마하리슈트라주 산업 단지 및 인프라를 연계 지원하고 기업 진출 과정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

# HD현대, 인도 중앙정부와 합작 조선소 설립 추진

NSHIP TN, SMFCL 조선투자펀드 최대 주주로서 조선소 운영 전반 총괄

HD현대 인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합작 조선소 설립을 추진하며 현지 조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HD현대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NSHIP TN', 사카르말라 금융공사(SMFCL)와 신규 조선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SHIP TN은 인도 중앙정부 산하 VOC 항만청이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향후 정부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집행을 담당한다. HD현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협력 범위도 중앙정부 차원으로 넓

히게 됐다.

앞서 HD현대 12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와 신규 조선소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는 NSHIP TN, SMFCL이 조성하는 조선투자펀드와 함께 신규 합작 조선소(JV)를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서 조선소 운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선박 건조 수요 일부를 HD현대의 국내 조선소에 우선 발주하고, 현지 인력을 파견해 기술 습

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인도 내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조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조선소 구축도 추진한다. 설계·생산·운영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인도 조선 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현지 인재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내 협력사의 인도 진출 지원도 병행한다. 신규 합작 조선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현지 진출을 도와 블록, 엔진 등 국내 조선업 생태계의 확장도 이끈다는 구상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네이버-TCS, 'AI·클라우드' 시너지 극대화

인도 중심 AX·DX 신규사업 발굴

네이버가 인도 최대 IT 서비스 기업 타타 컨설팅 서비스(TC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네이버는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TC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와 클라우드, B2C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인도를 중심으로 AX와 DX 분야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둔다.

TCS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금융, 제조, 유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IT 서비스

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도 대표 기업이다. 연 매출은 약 300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력과 TCS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 및 데이터 자산을 결합해 인도 현지에서 빠른 사업 확장도 수익성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지 수요에 맞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인도가 AI 강국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AI·클라우드·B2C 분야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